

한글

조선어학연구소 발행

京城府 德水洞 二丁目九十一番地

第二卷 第七號
【號月九】
1934

一 部 一六
錢五 金月 年個
錢十三 金月 年個
錢五十五 金月 年個

發行所
九二一洞花府城京
部版出會學語鮮朝
番六三〇一城京督振

차 목

한글 기념날 양력 환산 개정	1	惡筆	8
한글 통일과 보급에	1	靑山別曲(古歌)	9
관한 여러분의 말씀	2	古語源流考	9
한글 바꾸잡아 쓰기 익힘	4	朝鮮語讀本卷一指導例	10
吳相濬氏 相議題를 보고	6	宋柱星	10
言語의 獨立	7	申瑛澈	10
우리글로 우리 내력을	7	李鍾麟	10
물음과 대답	7	崔鉉培	11
		李浩盛	12
		李浩盛	12
		鄭萬壽의 이야기	14
		한글신문	16

한글날

시월 이십팔일은 세종대왕(世宗大王)께서 한글을 훈민정음(訓民正音)을 발표하신 제사 날입니다. 이 날을 한글날이라 합니다. 이 날은 지금으로부터 팔년전, 한글이 탄생한 지 팔년째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은 병인년(丙寅年)이 달이 날에 맨 첫번 기념식을 행한 것으로부터이다. 그리하여 이날을 「한글날」이라 정하여 해마다 기념하게 된 것이며, 본디는 음력 구월 이십구일이던 것을 제 작년부터는 양력으로 환산하여 이와 같이 양력 시월 이십팔일

로 하게 된 것이다. (음양력 환산에 하루의 차이가 생기므로 전에는 이십구일로 하였음) 우리 세종대왕은 고금에 드문 성인으로서 정치상 문화상 가 특별한 공적을 끼치신 것은 이루 다 들수 없거니와,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세계 만방에 유가 없는 큰 사업이며, 우리 민족의 영원히 전할 값없는 보물이다. 만일 당시에 이 글의 지름이 없었던들 우리는 오늘 날 어떠한 지경에 이르렀을까. 그 어려운 한글으로 하여야 얼마나 고생하며 머리를 앓을 것인가. 생각하면 소름이 끼칠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 너무

한글 기념날

양력 환산 개정
十月二十九日
十月二十八日
朝鮮語學會 發表

본회의 주최로 해마다 지켜오는 한글날은 훈민정음 발표 제 8회갑인 지난 병인년(丙寅年)에 비로소 사회적으로 음력 구월二十九일로 정하고, 이때 사회일반이 지켜오다가, 이년년부터 양력으로 환산하여, 양력 시월二十九일로 지켜왔다. 이는 세종대왕(世宗大王) 당시 사양에 행하던

이제 우리가 맞이할 이 한글날은 우리가 전 민족적으로 축하할 기념날이다. 우리는 이날을 당하여 세종대왕의 성은과 주시경 스승 및 이를 위하여 애쓴 여러 선배의 노력을 감사하며, 아울러 한글이 속히 통일되어 일출 빛난 글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제 우리가 맞이할 이 한글날은 우리가 전 민족적으로 축하할 기념날이다. 우리는 이날을 당하여 세종대왕의 성은과 주시경 스승 및 이를 위하여 애쓴 여러 선배의 노력을 감사하며, 아울러 한글이 속히 통일되어 일출 빛난 글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제 우리가 맞이할 이 한글날은 우리가 전 민족적으로 축하할 기념날이다. 우리는 이날을 당하여 세종대왕의 성은과 주시경 스승 및 이를 위하여 애쓴 여러 선배의 노력을 감사하며, 아울러 한글이 속히 통일되어 일출 빛난 글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제 우리가 맞이할 이 한글날은 우리가 전 민족적으로 축하할 기념날이다. 우리는 이날을 당하여 세종대왕의 성은과 주시경 스승 및 이를 위하여 애쓴 여러 선배의 노력을 감사하며, 아울러 한글이 속히 통일되어 일출 빛난 글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한 글 의 통 일 과 보 금

전문연구가를 믿고

통일안을 따른다

活泉主筆 李明植

먼저 우리 말과 글의 통일과 보급을 위하여 친심갈려하시는 여러분의 정성과 열정을 감사하여 마지 않습니다. 오백년동안 각인과 쇠하여 오던 귀한 우리글이 이케서부터 통일에 들어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이 방면에 전심 연구하시는 이니까 그 현실을 믿고 따르니, 하루바빠 혼란하고 복잡한 것을 없애도록 하시기 바라며, 이것을 속히 보급하자면 각 출판기관이 협력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중에도 교회의 쇠가 몇십년전 철자 그대로 되어 있으니,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청결교회의 기관지인 「할찬」에서는 조선어학회에서 발표한 통일안 그대로 씁니다. 그러나 다소 틀린 점이 있지만, 그것은 글쓰는 이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요, 성의가 없어서 그럴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욱 힘쓰고 노력할 것입니다.

한글을 중시주의하라

언어주장에 가지자

三千里社 金東煥

한글을 보급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을 쓸가? 하는 것이 물으시는 요지인듯 하온바, 별다른 특출한 방책이라야 케에게는 없고, 단지 가장 권과력을 많이 가진 신문, 잡지, 출판물, 강습회, 교육기관

의 길을 통하여 깨우치게 하고 배우게 하고 쓰게 함이 중점을 압니다. 그리고 흔히 영어나 독일말을 좀 배운 사람들은 조선말을 또는 한글을 영문이나 독문만 못하다고 나무라는 「경박재사가 빠지기 쉬운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실사 단자수에 부족하고 문법에 독일문법, 영문법만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글 중시주의, 한글 옹호주장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습관에 젖은 구습을 일소하고 통일안에로

新朝鮮社 主幹 權泰彙

우리들의 산만한 것을 정리하여 한길로 통일한다는 것은 크고도 귀한 일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친민중은 이에 뜻을 합하고 힘을 모치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방면의 전문연구가를 신임한다는 것이다. 누가 조선말을 모르고 조선글을 모트라마는, 이것을 정리하고 통일한다는 것은 말과 글의 아는 것만으로써는 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선어 연구가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또 많은 학자가 모인 조선어학회를 신임하는 동시에 그회에서 발표한 통일안을 무론 찬성한다.

우리들은 사소한 주장과 잘못된 습관에 젖은 모든 구습을 일소하여 버리고, 다만 문자 통일의 대성(大成)을 목표로 하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 「신조선」은 오래동안 휴간하였다가 구월호부터 속간하게 되었는데, 인쇄부에는 신철자법의 활자가 구비하여 있으나, 원고 관계로 일시에 통일안을 따르지는 못하지

만, 차차로 실행하겠다. 이번 시월호에는 몇 개 원고만은 그대로 하였다.

대세는 이미 작정되었다

더욱 힘쓰고 노력하자

中央主筆 裴成龍

어학을 전문으로 연구하지 못한 우리들은 전문학자가 모인 조선어학회의 통일안을 신임하고, 동시에 이를 따름으로써 우리 한글의 통일을 도모할 것입니다. 특히 보통학교와 고등보통학교의 조선어 교과서가 이미 신철자법으로 개정되어 통일안과 큰 차이가 없으니, 이러한 교육기관을 통하여 우리들의 통일을 피할 것이요, 둘째로는 날마다 달마다 간행되고 있는 여러가지 출판물의 거진 전부 가이 신철자법을 좇고 있으므로 대세는 이미 작정되었으니, 멀지 않은 앞날의 우리글은 한길로 통일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중앙일보에서 발행하는 「중앙」 창간이후로 내내 통일안을 좇아 왔으며, 앞으로는 더욱 완미하여지기를 노력합니다.

이국어를 대할때

참이로 근간하다

가톨릭青年社 主幹 尹亨重

문자의 통일이 여간 급무가 아니라는 것은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가 없고, 이케 조선어 학회가 솔선하여 산만한 우리글을 정리하였으매 대하여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항

각 계 여 리 분 의 말 슴

상 외국사람과 많이 접촉하고 있는데, 그들이 나에게 조선글에 대하여 묻든지 배우려고 할때 대답하기 곤란한것이 많습니니다. 말 하면 많은 사람들이 각기 제 뜻대로 쓰면 좋겠는지요. 이러한 가운데 조선어학회에서 통일안을 발표하였으니, 우리글에 새 생명을 주었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가톨릭 청년」에서는 어학회의 회원이신 이병기씨의 조언어장까지 실은 일이 있으며, 아직은 인쇄소 관계입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잡지도 통일안대로 쫓아가려 하오니, 많이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의 통일안 연구의

근거는 조민어통일배격

青年朝鮮 主幹 金基鎮

호를하고도 소중한 우리글을 여태까지 현실팩처럼 버려두었다는것은 우리 민족의 큰 수치였습니다. 조선사람들이는 누구나 우리글을 위하여 노력하고 통일하기의 힘을 써야 할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글을 통일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하여서는 지난달 「삼천리」잡지에 간단히 썼읍니다마는, 우리는 마땅히 조선어학회의 통일안을 지지하는 동시에 이밖의 모든 어문운동은 배격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제 그러나 하면 조선어학회는 어떻게 해서 조선어 연구에 가장 권위있는 이들이 모인 기관이요, 통일안을 만들기까지의는 오랜 시일을 두고 연구발표한것이니, 이 이상 더 뛰어난 안이 없으므로사다. 그러므로 내가 주관하는 「청년조선」도 통일안을 좃고 있으며 다소 틀린것이 있겠으나, 앞으로 더욱 이 방면에 충실하여볼가 합니다.

민족적 수치로 깨달아

통일안을 철저히 실행

新人文學 主幹 盧子泳

열사같은 열사들, 백사같은 백사들, 각 각 쓰는글자가 다릅니다. 한 민족의 글이 이처럼 변한다는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외국 사람으로 조선글을 배우는 사람들이 제 조선글은 그렇게 질서가 없느냐고 불읍니다.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이지요. 이제 조선어학회에서 많은 연구와 노력을 허비하여 통일안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안을 신뢰하고 다 못 편지한장 쓰는대도 그 통일안에 의하도록 우리의 모토로 삼읍시다. 그리고 글쓰는 사람이나 신문잡지를 경영하는 사람이나 학교 선생들이나 이 통일안을 창심으로 실행하면, 우리의 한글은 몇해가 아니 되어 반두잡히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내가 편집하는 「신인문화」는 철저히 통일안 따름법대로 쓰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믿어야만

우리글의 통일안 도모

聖書朝鮮 主幹 金教臣

세계 문자 가운데 제일 훌륭하다고 하는 우리 한글이언만, 수백년동안 거두고 기르는 사람이 없어 그 아름다운 값을 발휘하지 못 하던것을 조선어학회의 손으로 갈고 닦아 이 제 통일안을 제정 발표하였으니, 우리 어학사상에 얼마나 빛나는 일인가. 이 방면에 수 십년동안 친심연구하여온 전문가를 믿고서 통일안을 좃아 쓰므로써 우리글의 통일안 완성되리라고 믿읍니다. 만일 이 통일안을 잘

못되었다든가 어렵다든가 해서 쓰기를 게을리한다면 우리글의 정리 통일안 영원히 바라지도 못할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전문가들의 따르는것이 가장 옳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관하는 「성서조선」은 물론이 통일안을 그대로 씁니다.

간행물의 대개가 신철자

한글의 통일안 불원간

學燈社 主幹 金鎮浩

우리글의 통일안 누가 바라지 않으리오마는, 나는 하루에도 몇번씩이나 이것을 느끼고 느낍니다. 한 인쇄업자로 앉아서 하루에 수십가지씩의 인쇄물을 맡는 가운데 그 철자법의 불통일된 현상을 바라볼 때 통탄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낙관합니다. 작년보다 금년이 낫고, 저달보다 이달이 나아가는 현상을 늘 목도하므로써외다. 교과서 부러가 신철자로 되었으니까 더 말할것도 없겠지마는, 신철자법도 어지간히 보급되고 널리 알려졌는지, 이와 같이 보조로 나간다면 우리글의 통일도 불원간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회사 인쇄부에서 패달 봐야하는 사실여가지의 정기간행물이 모두 신철자법으로 하는것이요, 그밖의 여러가지 간행물의 구입과 센트 이상이 조선어학회의 통일안을 좃아서 씁니다. 우리 「학동」이야말로 통일안 그대로를 꼭 실행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학동」의 글씨를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편의 통일안을 공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사에서 간행하는 모든 서적은 이 통일안에 좃아 쓸것은 불원합니다.

한글 바루잡아 쓰기 힘익



6818081

잘못을 바루잡아 쓰기
말을 통일하는데에 한도
여이 난을 두는 것이다.
그 절에 바루잡아 쓴 것
보기를 바란다.

가난한 색기 장사 (二) 스테분손 지음

이 이틀날 아침 일찍이 어부는 그를
그 잇들날 아츰 일지기 어부는 그를
질을 하려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다른 때보다도 훨씬 미나 재웠습니다.
어부는 혼자 병실방실 조와하며 돌
아와서 맨처음에 자판 큰 고기 한
마리를 하산에게 가지고 가서
『하산! 이 어케 커넉에는 대다니
고마워. 이것 단 한마릴세마는, 칭으
로 가지고 온것일세』
『에이구! 천만의 말일세. 내게 소
용도 없거든 가지고, 주는게 의례 당연
한 일 아닌가. 그런데 이 사람 별적
칭을 다했네 그럼. 이 건너무 미안한
데, 그러나 못처럼 가지고 온거시니
받겠는 바깥네마는, 대다니 미안해』
하고 고기를 배터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고기를 해먹으려고 배
를 가르니까, 배속에서 크다란 금장석
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산은 그거시 금장석인지
도 모르고 그치 유리 쪼각이거니만
생각했기때문에 아해들에게 작난감으
로 내주어버렸습니다.
아해들은 그거시 다만 굵고 빚치 마
남으로 번가라 가지며 조와했습니다.
그리는 동안에 차차 해가 커들고 사
방이 컴컴해오는데, 그 구슬은 작구
터 밝아갔습니다.
『야! 이것 참 별거시다』
아해들은 왈차지하게 쳐드러냈습니
다. 하산은
『왜들 이러니』
하고 가서 본즉, 아닌게 아니라, 유리
쪼각 이상하게도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그때 아이들하고 가지 그 구슬을
가지고 집에 드러가서 등잔불을 켜고
고 감감한 밤에다 노아 보았습니다.
그래도 구슬은 여겨너 반짝반짝 빛

이 남으로, 다쳤이나 되는 아이들은
손바닥을 치며 조와하고 야단이 었습
니다. 하산은
『이놈들 식그럽다. 조용히 좀 해라
웃집 방해가 안되니?』
하고 남드랬지만, 여간해서 조용해
지지를 아니했습니다.
이불 속에 드러간 뒤에도 아이들
은 작작귀를 치다가는 다 잠이 드
어버렸습니다.
하산은 아이들이 다 잠든 뒤에 혼
자서 그 구슬을 이로커로 뒤쳐 보았
스나, 아모래도 그거시 금장석이라는
보물인줄은 몰랐습니다.
이름날도 아이들은 유리구슬을 가
지고 놀고 있고, 하산은 여겨너 색
기만 꼬고 잊었습니다.
그러자 이웃집 부자가 와서
『어케 커넉에는 두엇 때문의 식그
러웠소』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그러면 그 유리구슬을 좀 봅시다』
하고 아이들 손에서 그거슬 바닷습
니다.
본즉 그거슨 칭말 금장석이었습니다.
그리고도 여간 큰것이 아니었습으로

『여보 이것을 십만냥에 파시우』
하고 그거슬 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
더니, 조금 있다가 돈을 잔뜩 가지고
와서 하산에게 내여주었습니다.
하산은 별안간에 큰 부자가 되었
으므로, 일꾼을 많이 얻어 들며 평
장하고 크다란 기계를 사드린다, 큰
집을 짓는다 하여 훌륭한 상점이 되었
습니다.
그뒤 얼마 아니 되야 어사아도는 하
산이가 었더케나 사는가 하고 보러
왔더니, 하산의 집이 아조 업쳐커바
렸으므로, 대다니 놀랐습니다.
거기에 맞춘 지나가는 사람이 잇
으므로
『여보 여보, 여괴 살던 하산이란
사람은 그간에 죽었습니까』
하고 무튼즉, 그 사람은
『천만에요. 죽는게 다 무덤짓가. 커
기 커 큰 상점이 하산의 집입니다』
들이 큰 상점 문앞에 간즉, 하산
은 맨발로 뛰어 내려와서 코가 쌍
에 다케 칠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사
람을 훌륭한 의자에 안친 뒤에 이

평계 려게 부자된 이야기들 했습니
 다. 하산은 별별 음식을 다 차려
 서 두사람을 머겼습니다.
 날이 새여서 두사람이 돌아
 가려고 도라가라고

한즉, 하산은 온갖 좋은 찬
 들과 고여서 그거를 일꾼의게 지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세사람은 끝끝내 칭다
 운 막약간 친구로 지냈습니다.

文藝家 諸氏が 오직 正當한 批判으로
 우리 社會에 聲明書를 發布함을 볼 때
 에, 우리로는 羨望을 汗背할 地경이며,
 앞으로 責任이 더욱 무거움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本會에서 다음과 같은 公議를
 文藝家 諸氏에게 보내어 그 深厚한 同
 情을 사레하였다.

文藝家 여러분께

어느 民族의 文學 乃至 文化的 向上
 發展은 그 民族의 言語, 文字의 便否와 精
 粗에 莫重한 關係가 있는지라, 이에 우리
 朝鮮語學會 會員一同은 일찍이 朝鮮의 모
 든 文化的 經綸이 오직 言語와 文字를 基
 礎로 삼고서야 達成할 수 있음을 깨닫고,
 銳意, 語文 研究와 整理에 沒頭하는 一方,
 그 普及運動에 各各 全生涯를 바치려 決
 心하였나이다.

그리하여 從來의 한글 記寫法이 一貫한
 組織과 法則이 없이 十人十色의 綴字를 행
 함을 스스로 目睹하였으며, 또 文筆家와 教
 育家의 그 不便을 訴하는 叫聲이 驚愕함
 을 들을 때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한
 글 綴字法의 統一을 期하지 아니하면 안
 된리라 생각하와, 이에 대한 委員을 選定
 하고 案을 세워 兩三年來로 그 討議에 가
 위 廢舊忘食의 微誠을 다하고, 當時까지
 우리가 가진 言語學的, 文字學的 知識의
 最後의 一滴까지 짜내어서, 會合으로 百二
 十五回, 延時數로 四百 三十三時間을 費
 하여, 겨우 客年 十月에 이르러 訓民正音
 頒布紀念日을卜하여 「한글 맞춤법 통일안」
 을 中外에 公表하였나이다.

千萬料外로 이에 對한 社會의 支持와 同
 情이 洽然히 모임을 보고, 우리는 삼가 생

각하되, 우리의 發表한바 統一案의 그 自
 體가 完美하다는 이보다 우리의 日常 研究
 態度가 어디까지든지 嚴正 公平한 科學的
 이었으며, 朝鮮語文에 對한 우리 熱烈한 誠
 意의 一端이 社會에 公認되었음에 있는 것
 이라 믿삼고, 더욱 社會의 저와 같은 期
 待에 奉副하지 않을 수 없는 責任感을 切
 實히 느끼었나이다.

그런데 近聞에 이르러 平時 우리 語文
 研究에 特別한 素養이 없는 一部 人士가
 或種의 誤見과 計劃을 품고, 이 民族의 百
 年大計에 對하여 反對의 妄動을 出하려한
 다는 風聞을 듣게 되었다. 이에 누구보다
 도 率先하여 文藝家 諸位께서 奮然히 驅
 起하여, 그 不純한 動機에 由因한 蠢動을
 警懲하는 聲明書를 社會 公眼下에 飛檄하
 심을 보매, 우리는 이 至公한 壯舉에 對
 하여 무엇이든 謝禮할 말씀을 찾을 것 없
 자오며, 오직 感激의 눈물이 솟아 오르는
 同時에, 앞으로의 우리 實務가 一層 크고
 무거운 힘으로써 우리의 心胸을 迫壓함을
 깨닫나이다.

우리는 다시 생각하노니, 더욱 斯道에 對
 하여 研鑽에 研鑽을 거듭하여 한글 綴字
 法의 愈善愈美를 期하려함은 勿論, 朝鮮
 語文의 分野 속에는 아직도 研究의 鋤鋤
 이 不入한 處女地가 廣漠한지라, 그 墾拓
 에 心血을 濺盡하여 이에 殉함으로써 이
 와 같은 社會的 庇護에 報答하려하나이다.

앞으로 文藝家 各位의 健康을 비옵고,
 앞으로 倍前의 鞭撻과 眷顧를 아끼지 마
 시기를 삼가 바라나이다.
 一九三四年 七月 一三日
 朝鮮語學會 會員 一同 謹白

한글 맞춤법 통일안

半千年 以來 整理 못되었던 우리글을 朝鮮語學會의 손
 을 빌어 비로소 맞춤법(綴字法)이 完成되었다. 全 民族이
 統一하게 쓸 표준글은 반듯이 이것에 말미암을 것이다.

定價 二十錢
 送料 二錢

訓民正音原本

四百 八十年前 世宗大王께서 訓民正音을 頒布하시던
 그 原本을 寫眞銅版으로 縮刷한것이다. 우리글의 근본을 알
 고키 하는이로는 아니 보면 안된다.

定價 二十錢
 送料 二錢

延禧專門 學校教授 崔鉉培先生 著

중등조선말본

菊判二百頁
 紙質堅厚
 脊布美本

定價 八十錢 · 送料 六錢

大好评 · 再版

- ◆標準朝鮮語文法인제出現
- ◆最良의 朝鮮語文法教科書
- ◆朝鮮語研究의 基礎知識書
- ◆著者數十年專心研究要領

朝鮮語學會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基準한
 文法이다. 무릇 朝鮮語에 對 있는 이는 누구든지
 배우라 읽으라.

◎注文은 京城花洞 一二九番地
 朝鮮語學會出版部로
 振替京城壹〇參六番

吳世濬氏의 相議題를 보고

宋 柱 星

나는 지난해 「한글」 제구호에 실린 씨의 相議題를 보았다. 그중 제二, 三항을 유심히 되풀이하여 읽었다. 그것은 첫째 나와 같은 교원의 처지인이의 말승인 까닭이었음이고, 둘째로는 나와 같이 우리글의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진이라는 반가운 생각에서 그러하였다.

一, 첫째로 (第二項) 씨는 교과서에 채용하는 맞춤법과 민간에서 쓰는 맞춤법과의 다름에 그 어느것을 표준할지 실지로 가르치는대 곤란을 느낀다는 뜻에 틀림없이 보았는바, (諸學者의 意見이라 하였음은) 우리의 代表的 研究 機關인 朝鮮語學會員 諸先生의 意見「即 맞춤법 통일안」을 뜻하는것으로 미루워 생각한 다. (정말 그런 점이 있다. 적어도 민간에서 쓰는 맞춤법을 아는이라면, 누구나 다 등감일것이다. 현재 보통학교 교과서에 채용한 맞춤법이란

조치안 교육을 모두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학부국안」인 만큼, 교원으로서는 직접 체계를 가진 관계로서 형식적으로라도 교과서의 맞춤법을 무조건하고 따라야 할것이요 또 당국의 지지도 그럴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교원되는자는 생각을 하여야 될것이니, 본래 문화적 사물을 연구하여내는자는 개인적으로 민간 학자에 있음인지라, 이를 필요에 따라 보급발달을 시킬때는 국가의 행정기관되는자 비로소 민간 개인의 연구한것을 채택하는것이다. 이러한 순리로 보더라도, 민간의 그것이 무엇보다도 향상 앞서나아가는것이다. 단지 국가 행정기관은 이에 추종하는 처지일수 밖에 없을것이다.

그러므로 교과서적 학부국안이란것도 넓히 모든 학자의 의견을 종합한것에 틀림없겠으나, 벌써 민간에서 쓰는 맞춤법에 뒤떨어짐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것은 교과서 같은것이란 짧은 기간을 두고 늘 개정할수 없기때문에 당연한 귀결일것이다. 그러므로 가르치는 처지에 있는자는 항상 이런 점에 고려가 있어야

할것이다.

교과서적 맞춤법이라야 민간 것보다 대동소이하다. 주로 틀리는 점이란 「으」 바침을 채용하지 않은것과 표음적 표기법이 철켜하지 못한것, 및 한자음(漢字音)에 대한 점들이라고 볼수 있다. 이렇게 별 로의 차이는 없는것같으나, 「으」 바침 문체만은 교과서 맞춤법의 커다란 흠점이다.

오늘날 민간에서 쓰는것은 문지 않아도 누구나 잘 알 일이니, 즉 우리 기관에서 맨 들어내인「맞춤법 통일안」이다. 이미 신문 잡지 등속 모든 간행물이 다 이안을 실시하는것이다. 가장 권위 있는 학자들의 나무랄수 없는 이상안(理想案)이 되기때문이다. (그러나 요즘 우리글 통일실시에 대하여 가장 통분한 사실에 있음을 느끼나니, 서울에 박모(朴某)라는 괴상한 마 음씨를 가진분이 스스로 괴

벽한 글자를 맨들어 바야흐로 우리글의 통일되는 도정에 들어서서 웨방을 치는 불 가해한 행위를 감행하니, 이 뜻없고 맘알음에 질통가련한 생각에서 비분이 넘쳐 주먹 을 내려주고싶은 생각을 가지게 하는 사실이 있음은 실

로 유감도 천만이나)

그러므로 나는 지금 교과서를 학부국안으로 개정하는 도중에 있으니, 차라리 민간 통일안으로 바꾸 고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진다. 그 주요점인 「으」 바침사용에 가 부에 대하여는 문체시할 여 지가 없다기보다도 취야 된 다고 할것이므로써이다.

또한 본래 학부국안이란 그 안 작성시에 의원들 중에는 한문의 공행이가 쓴 구수의 머리를 가진이가 많이 섞여 있었으므로 그만한 안이라도 되었음이 다행하다 할 만한 난관에 처하였던것인 만치 「으」 바침등을 넣지 않게 된 불비한 안인것이므로

더욱 그렇게 느낀다. 이러한 취지에 있는 조천어교과서를 가르치는 자는 스스로 생각함이 있어야 할것이 다. 누구에게 불을 치지도 못 된다.

원되는자는 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것이라 한다.

二, 둘째문제로 (第三項)오 씨(吳氏)는 한글 시간이면 땀을 흘린다 말하였다. 진실로 나는 감개무량함을 느낀다. 정말 그렇다. 진땀이 흐른다. 딱하고 막연한 생각을 일으킨다.

대체 무슨 학과를 무른하고 전문가가 아닌 이상 대가의 커슬한 참고서 등속에서의 지하여 가르치는 방법등을 깨닫게 됨이 보통사람의 배사 일것이다. 그런데 현급 보통 학교 조천어 교수에 대한 참 고서 등속이라고는 보기도 볼다가보다도, 보고 죽을때도 없다 할만하다. 내가 아는 범 의로는 경사부속보통학교 심선생(沈先生)의 교수세목 밖에는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 교수세목조차 갖 추지 못한(?) 학교가 펴도 많은 현상이니, 그러면 권조 천 대다수의 교원케 친구는 무엇 아무 취척을 참고하지 않고도 능히 스스로 완전한 교수를 시킬만한 실력을 가지고 실지교수에 당하고 있을 가? 아니다. 그렇지 못하다. 이 권척적 문체는 뜻있는 개인의 흘리는 땀에 비할바가

아니다. 그커 아무 교수(그
 파에 대한) 목적도 방법도 없
 고, 다만 맹목적으로 글짜기
 나 읽히기만을 일삼다가 시
 간을 보낸다. 여기에 오늘날
 조선어과 성격이 좋지 못하는
 큰 원인이다. 보통학교 육개년
 을 졸업해도 편지 한장 제대로
 못 쓰는 형상이야말로 이에 대
 한 큰 비증명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불성적인 조선어과 교
 수에 대하여 연구나 하는가?
 내가 교원생활 유희년에 미
 치나, 어느 학교를 들렀고 조
 천어 교수법 연구회를 여는
 데는 거의 본바가 없을까 하
 다. 그보다도 일반 교원들의
 조선어과에 대한 태도가 더
 욱 한심한 꼴이니, 개칭, 철
 자법이 어떠한 것인지를 모르는
 사실이요 또 알려고도 않으니
 이 어찌 통탄할바 아닐까!
 아! 이러한 정세의 있어서
 맘을 졸린다는 오형(吳兄)의 말
 씬에 어떻게나 반갑고도 미더
 움을 느끼게 되는지 알수 없다.
 오형이시여! 나는 실로 신
 진 교원인 오형의 많은 기
 대를 가지고 있다. 많이 연
 구하시어 좋은책을 많이 맨
 들어 내어 일반 조선어 교
 수에 비익을 끼쳐 주시오.
 그렇게 하는 가운데는 오
 형 자신이 졸리는 맘은 커
 실로 식어지게 되리다.

독자의 소리

言語의獨立

春川 申瑛澈

무릇 한 사회와 한 민족의 언어는 그 언어가 있는 한 그 언어를 사용하
 는한, 그 언어는 언어만을 쓸것이 당연한 일
 인지라.

영어가 그렇고 독일어가 그렇고 세계 각국의 언어가 모두 그 민족 국가의 순전한 말로 쓰는 것을 보아도 다아는 바니라. 그렇기들 슬프다 우리 조선사람은 반만년 긴 역사와 세계에 빛나는 말과 글을 갖고도 이를 사랑할 줄 모르고 귀여워할 줄 모르며, 소위 자칭 문헌자며 자칭 사상가라는 자며 삼함에 있어서 조선의 빛이 될 어린이의 교육에 당한 교육자에 이르러서도 우리의 말과 글을 사랑하고 귀여워하기까지는, 이들 연구하며 배우려 하기까지는, 우리의 말도 하나 똑똑히 못하니, 이 어찌 우리의 장래를 생각할 때 비란의 눈물을 안 흘리랴. 그들의 열마다 이야기 가운데

는 반듯이 한두마디의 외국어를 뒤섞어 쓰는 것이 실증된다. 물론 말이란 세계의 문화와 각민족 국가의 교통왕래가 심해갈수록 할수없이 아니 더 빨리 알고 빠르게 하기 위한 원음대로의 외국어도 더러는 섞여어지는 것이 오늘날 현세이지만, 우리는 아케야 우리글이 통일되리라고 아케야 우리글을 배우니 이 별시 다른 사회 민족에 뒤진 증거요. 미개한 컴이라고도 하겠거든, 무슨 까닭으로 케 말까지 망쳐버리려 하느냐? 무슨 까닭으로 케 말 쓰기를 싫어하느냐? 케 말로 한장 글이나마 한 장의 편지나마 쓸 마음조차 없어척가느냐?
 아아, 사랑하는 동포들아. 소위 문사들아. 교육자들아. 자각하라. 이때는 우리가 다 가치 우리말을 독립시키자. 그러하기에 힘쓰자. 섞어 쓰지말자. 말과 글을 사랑하고 배우고 되자.
 우리말과 우리글을 우리가 아니고 또 누가 사랑할 자 있으랴. 또 누가 쓰는 자 있으랴.
 동포야 자각하라. 말을 원태 독립시켜 쓸것이니라.
 (四二六七·九·十七)

우리말로 우리의 내력을 알자

振威 彭城 李 鍾 麟

세종성주의 조선 민족에게 끼친 이 지대한 보물이 반천재의 일월을 지나도록 현존한 공적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이 다만 아래북 구석에서 소설 읽은 소용에 지나지 못하야, 소위 이르기를 「암말」이라 하고, 불상히도 한 덩어리의 민족으로 자기의 가진 글들을 등한시하고 어찌 세계 문명인과 어깨를 겨룰 소냐.
 사람은 만물의 영이다. 따라서 우리는 오랜 역사를 가진 우수한 민족이라 일컬음을 듣는다.
 이러한 우리로서 우리의 내력을 알지 못하고, 우리 조상 좀더 나아가서 우리의 반만년에 빛난 역사를 아는이 가 얼마나 되는가. 남 가진 이목구비 다 가지고서 어찌 그리 호몽하게도 일평생을 보낼소냐.
 우리 조선은 비록 오늘날 아무것도 보잘것이 없으나, 그래도 옛날에는 반만년의 길고 빛난 역사, 소위 역사라

는 말만 하고 민중에겐 영어 리, 소경, 귀머거리를 만들어 전사회의 대중을 전부 병신을 만들어 놓았으니 그 사회가 온전 할 것이냐.
 케 고향 찾아 북망산으로 간 학자들이여. 영혼이 있다면 부끄러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분함을 견디지 못하겠다. 무슨 이유로 무슨 뜻으로 남의 나라 글로 곧 한문을 내 나라 글을 만들려고 하였나? 어찌하야 내 민족적 보배를 버리려고 하였나? 분하고 원통하다. 북망산의 누운 학자들아.....
 답하다. 우리는 하루바삐 우리 보배를 찾는대 따라 우리의 내력을 알아야 할 것이다. 내 조상의 사적을 알아야 할 것이다.
 문예가 또는 조선어학회 회원 제위들이여! 시국에 당면하였으니, 하루바삐 보급에 착수하시고, 하루바삐 사학에 대한 서적 또는 우리 선인들이 끼친 명문거편(名文巨篇)을 우리의 글로 교정하여 우리 민족도 우리의 내력을 모르면이 없도록 하야, 우리도 세계 문명인과 어깨를 가추도록 하자. 따라서 우리 보배를 찾도록 힘쓰자.

藝		文
	X	
	漫	
		X
		筆

惡筆

金岸曙

문필(文筆)을 일생의 업(業)으로 삼는이에게 도리어 악필(惡筆)이 많으니, 이처럼 모순은 없는 일이외다. 그러나 모순이 있는지라, 또한 이덕(德)이 있는것을 잊을수가 없으니, 달필(達筆)에는 오식(誤植)이 있어도 악필에는 오식이 드문것이외다. 누구나 보아 알아볼수가 있는지라, 달필에는 그 사상을 잘못 보기가 쉽고, 누구나 보든지 잘 알아볼수가 없는지라, 악필에는 필자(筆者)의 사상이 잘못 보여지지 아니하니, 이곳에서 악필은 달필보다 좀더 똑똑하게 행세를 할수가 있는것이외다.

본래 아무리 문필을 일생의 업으로 삼는다 하더라도, 글씨란 면서기(面書記)들이나 승상할것이요 문필가(文筆家)의 승상해서는 아니될것이외다. 그렇고하니, 사람이란 한 마음으로써 두 주인을 섬길수가 없기때문이다. 자기의 사상에 충실을 다하여 그것을 여실히 그려놓을것이냐, 그렇지 아니하면 글씨에 다 주의하여 써 자기의 사상을 내버릴것이냐. 문체는 이렇게 되니 커즈앙·작크·루우소우가 말한 「사상과 작가가 글씨를 잘 쓰려고 하면 그들은 속에서 풀어나오는 사상을 자연히 방해하게 된다」는것이 결코 거짓이 아니다. 이것으로 보면 사상가와 작가들은 의례이 글씨를 잘 쓰지 못하리라 할것이외다. 그것으로써 자기네들의 사상에 충실한것을 볼수가 있기때문이다.

그리하여 악필의 거두에는 대개가 일생을 문필로 보낸 사람들이 많으니, 이야기보다도 증거가 체스피어의 원고는 소함교 — 二학년생의 그것만도 못하여 인쇄직공이고 생을 하지 아닐수가 없었고, 커팍장대로 유명한 토마스·카라일의 원고는 누구가 보아도 알수가 없어서 인쇄소에서 카라일의것이라하면 머리를 흔들며 쳐면중계 사철을 하였다니, 상당히 악필이었던 모양

이외다. 그리하여 이 딱장때는 화가 나서 「세상에 인쇄직공하고 윗병(胃病)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행복이라」고 부트된것이다. 더구나 자기까지 두고도 그 모양이었던데라니, 이런 글씨는 그야말로 똑똑하게 행세할수 없는 문자 그대로의 악필이었던것이외다. 돌스토이 같은이는 자기 다누라가 아니었던들 「평화와 전쟁」을 인쇄소에 보낼수가 없을만치 악필이 되어 천후일을 굶거나 소피아부인이 청서를 해주었던것이외다. 때를 돌스토이도 글씨에는 난쟁이들 같은이었고, 러스킨 같은이는 같은 악필의 카라일에게 편지를 하면서 자기의 악필을 부끄러워하여 가므로 「글씨가 너무 나빠서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알아보도록 친절히 쓰자면 사상이 다른 곳으로 쓸

리는것을 어찌합니까. 그래서 어찌할수없이 이렇게 알아볼수 없는 글씨로 씁니다」고 하였으니, 같은 악필의 카라일이 이 편지를 받아들고 화를 내었을상도 하외다. 아무리 이론(理論)으로는 작가의 글씨가 악필이 되지 아니할수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여하간 이야말로 웃어버릴수 없는 「아이러니」외다. 대장의 집에 식칼이 없는것을 고소(苦笑)할 일이라 하면 이것도 그것에 지지 않을만치 공소(哄笑)할 일이다. 우리 문단(文壇)에도 이런 「아이러니」를 등어다 지고 행세하는이가 있으니, 빙허(憑虛)와 동인(東仁)들이외다. 불행히 글씨를 잘 쓰지 못하는지라, 그들의 문장(文章)에 오식이 없을것을 다행으로 말거리와, 만일 문장에 오

식까지 있었다가는 그들을 위하여 불행의 불행을 실어하지 않을수가 없는 일이다. 하는 말이 청색(靑色) 심연에 황모(黃毛)가 못된다 하나, 아무리 악필이라도 하루같이 원고를 쓰노라면, 어느덧 그들의게 일정한 틀이 잡혀, 그들의 글씨는 어느 곳에서 보아도 알수가 있으니, 이후 그들의 글씨를 위조할수 없는것이 대행이외다.

대답과 대답

【대답】 「양이면 안될것이

다」의 「양」과 「안」, 「그렇지 아니한가」 「그렇지 않는가」의 「아니」와 「양」이 어떻게 다름니까. (辰橋 李杏植)

【대답】 「양이면」의 「양」은 움직씨(動詞), 「안될것이

다」의 「안」은 어찌씨(副詞)로서 품사가 다른것입니다. 그리고 「양」은 「아니하」의 줄인말(畧言), 「안」은 「아니」의 줄인말이니, 그 말은 「아니하면 아니될것이다」라 하여도 꼭 같은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한가」와 「그렇지 않는가」는 꼭 같

다. 「양인가」가 「아니한가」의 줄인말입니다. 다만 「양」이 「아니하」를 대신한것임을 알아두시오. 여기에서 하나 주의할것은 「양」이 「아니하」의 줄인말인것을 모르고, 흔히들 「아니하다」를 「양의」로 쓰는이가 있으나, 이것은 크게 잘못입니다. (이윤재)

普通學校...

朝鮮語讀本卷一

指導例

(五) 沈宜麟

一、教材 「三十四、동산」은 되었소. 화초 도 심었소. 이 번에 는 집 을 지읍시다. 그리고, 음식 을 만 들어서 잔치를 합시다.

二、教材觀 文學的 教材로 계집아해 들의 솟갑작란하는것을 鑑賞케하고 동모間的 親睦하고 즐거웁게 노는 것을 善導할것이다.

本文은 계집아해들의 藝術的 遊戲生 活을 紹介한것이라고 보아도 可하다. 花壇을 만드고, 花草를 심고, 집을 짓고, 料理를 만드어서, 잔치를 여 는等 兒童의 世界로서는 實로 文化 的 놀이의 生活이오, 理想的 創作的 生活이다. 이 情다웁고 아름다운 즐 거운 生活을 充分히 鑑賞하게하며 各各 自己의 遊戲를 더 一層 자미 잇고 즐거웁고 아름다운게 하도록 引導하여야 한다.

1、文... 계집아해들이 자미있게 솟 갑질을하며, 하는 말을 쓴 글이다. 2、插畫... 계집아해들이 모여서 솟갑 집을 하는것이다. 흙을 긁어모아서 동산을 만들고 여러가지 화초를 심

는 모양이다. 엇던 아해는 맨발로 조고만 부삽을 손에 들고 흙을 긁 어모으며, 엇던 아해는 양동이에 물 을 떠다노코 화초를 심고는 물을 주며, 엇던 아해는 앉아서 들떠다보 고 있다. 인제는 집을 짓고 음식 을 만들어서 잔치를 할것이다. 모 다 情다웁고 자미있게 노는 모양을 그린것이다.

3、新語... 동산, 되었소, 화초, 심었 소, 번, 그리고, 음식, 만들어서, 잔 치합시다.

4、補充語... 흙을 긁어 모다, 부삽, 맨발, 양동이, 솟갑질, 자미잇고, 즐 거웁게 노다,

5、新語... 되, 밋, 화, 초, 심, 번, 음, 잔,

6、兒童遊戲... 아해들이 놀 때에 하 는 유희를 보면, 계집아해들은 혼 히 「솟갑질·각시농음·공기들뜰기·오 라잡기·널뛰기·그네뛰기」 같은것이 만코, 남자아해들은 「케기차기·차치 기·비사잡기·사방치기·슬래잡기· 그외에 公가지고 하는 여러가지 유희」들이다.

三、指導方法大要 (四時間 取扱)

1、自由讀、試讀、範讀、指名讀、齊讀 等方法으로 正確하게 읽는 練習. (同時에 新出字의 읽는 法이며 쓰는 法이며 讀調等을 指導한다)

2、大意의 發表... (무슨 말을 쓸 글 인지 自由로 發表케 한다)

3、內容問答... (무엇을 하니? 첫번

에는? 그 다음에는? 그래서 엇더 케하니? 동모들과 엇더케 노는것 이나?.....)

4、插畫에 對하여 이야기 練習. (補充語의 指導)

5、讀法의 練習... (內容을 생각하 며)

5、大意整理... (계집아해들이 모여 서 동산을 만드고, 화초를 심고, 음식을 만들어서, 잔치를 하는 솟 갑질 이야기를 쓴 글이다.)

7、所感發表... (엇더케들 노니? 엇 더케 여기니?)

8、語句의 適用練習... (되었소, 심었 소. 이번에는. 지읍시다. 만들어서. 합시다)

9、書取練習... (視寫、聽寫)

10、應用文의 讀法練習 「화초동산」 만들어서

양옥집을 지은 후의, 가지각색 요리음식

만들어서 차려노코, 우리 동모 불러다가,

즐거웁게 잔치하세.



동신

(권략) 우리 한글은 일부 학

자나 문필가의 홀로 쓰는 물건 이 아니라, 무릇 조선말을 하는

사람은 다 써야 할것이므로, 민 중이 사용함으로써 그 효율함을

나타내게 될것입니다. 저는 물론 커우리 한글을 애용하지 별치오

래며, 하루바삐 통일되기를 바라 고 힘쓰고 장려하였습니다. 그리

던중에 이번에 우리 한글이 대 체로 통일되어 세상에 나오게 되

었으니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그 러나 우리 골에는 아직까지 한

글이 무엇인지 마춤법이 무엇인

며 언제 통일안이 발표되었는지 모르는 인사가 많고, 심한 사람

은 조선말 조선글을 폐하고 X 말이나 중국의 한문을 숭상하

는 가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리하여 케가 힘자라는대까지 이

한글을 모르는 딱한 인생들이 많고쳐하여, 그들에게 한글 잡지를

위하려하오니, 이 아래에 적은 각 인(三十六人)에게 한글 한권씩 배

부하여 주시오. 잡지의 값은 무른 케가 부담합니다. 각인에게 발송

하실 때에는 어학회나 출판부의 명의로 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

(하락) 스.스.스 올림

普通學校 朝鮮語讀本 語彙調查 卷一부터 卷四까지
 教科書綴字法과統一案과의對照

(2) 李 浩 盛

교과서 통일안

【거】

거기(其處)

거기서

거느리다(率)

거느린자

거대하다(巨大)

거대함은

거름(肥料)

거름이되오

거리(街)

네거리

거리들

거미(蜘蛛)

거북(龜)

거북넙

거울(鏡)

거울과같은

거위(鵝)

거절(拒絕)

거절하였습

거짓(僞)

거짓말

거짓말습

거짓이

거처다(通過)

경성을거쳐 경성을거쳐

【게】

게(蟹)

【괘】

괘(櫃)

【걱】

걱정(心慮)

걱정이니

걱정은

【건】

건느다(渡)

건느라고

건느라고

건너편

건너오는

건너가든

건너라

건너매논인

건너매논인

건너매논인

건너매논인

건너매논인

건너매논인

건너매논인

건너매논인

건너매논인

걸어앉아서

것다(步)

걸었다

걸음은

걸리다(掛)

걸린모자

걸림닛가

걸리는셈이다

걸린다

걸려서

걸려

【겉】

겉(殼)

겉껍(笑聲)

겉껍웃었다

겉껍웃었다

【검】

검다(黑)

검약(儉約)

검질(外皮)

검질과

【쟁】

쟁(雉)

【저】

저우(僅)

저을(冬)

저을은

저을이

저을은

저을의

【계】

계속(繼續)

계속하는등안

계수나무(桂)

계시다(存)

계산곳으로

계시는

혼자계시다가

계실때

계시지않아서

계셨다면

계셨습니

계셨스리

계셨으리

계집(女)

계집아해들이

계집아들

【견】

견디다(耐)

견딜수업다

견딜수업스니

견디기에

견디기에

【결】

결과(結果)

결과인데

결단(決斷)

결단하고

결박(結縛)

결박하였습

【결】

결정(決定)

결정이되지만

결정이되지않

결고(決)

【겸】

겸손(謙遜)

겸손하고

겸하신

【경】

경계(境界)

경계하야

경복궁(景福宮)

경복궁을

경상북도(慶尙北道)

경성(京城)

경성서

경작(耕作)

경작은

경주(慶州)

경치(景致)

경치인들

경치와

【결】

결(側)

결의

【고】

고가(高價)

고가의

고개(首)

고개만

고개(峴)

고개마루

살년고개라

살년고개로

고기(魚, 肉)

고기잡이

고기가아니면

고래(溫突)

방고래와
고르다(調)
고르지못하얏
고르지못하얏
습니다
습니다
고리(環)
고맙습니다
고마운소
고목(古木)
고목 밑에
고사리(蕨)
고색(古色)
고색이
고생(苦生)
고생은
고생하신다
고스모스(花名)
고스모스는
고양이(猫)
고양이에게
고요하다(靜)
고요하니까
고이다(溜)
몰이고인다
고지식하다
고지식한
고치다
고칩습니다
고칩다
고쳐야할것
고쳐야할것
이다
이다
고쳐져서
고쳐져서
고통(苦痛)

고풍은
고프다
고파서
고파도
고향(故鄉)
고허촌(高墟村)
고허촌의
꼬리(尾)
꼬리를
꼬리
괴수(魁首)
괴수되는
【피】
피(謀)
피를내어
피만인
피꼬리(鶯)
【부】
곡물(穀物)
곡물과
곡식(穀植)
곡식중의
【부】
꼭(必)
꼭
꼭된말이요
꼭된말이요
꼭교(鷄聲)
꼭대기(最上)
꼭대기에는
꼭지(帶)
【곤】
곤하다(悃)

곤하지
곤해하니까
【곤】
곧다(直)
곧아야합니다
【곧】
곧다
곧을곧며
곧르다(擇)
곧라내어
곧란하다
곧란합니다
【곰】
곰(熊)
【곰】
곰다(美)
곰게
곰와야
곰인
곰기도하다
【곳】
곳(即時)
곳(處)
【곳】
곳으로
곳에서
곳으로
곳이
곳을
곳인데
【공】
공(孔)
공간가보다
공서방

공가가아니고
공(功)
공을세웠슴
공을세웠으
으로
공치사하적이
공(毬)
공부(工夫)
산술공부
글씨공부를
공부하얏
공부하얏
공부하야
공손하다(恭遜)
공손히
공손하게
공이(杵)
공이소리
공작(孔雀)
공중(空中)
공책(空冊)
공책이요
공책이요
【공】
공장(宏壯)

굉장한
굉장웅대함
【꽃】
꽃다(挿)
꽃아
【꽃】
꽃(花)
꽃이
개나리꽃이
꽃잎이
꽃잎을
꽃잎을
꽃잎을
꽃과같은
분홍꽃을
【교】
교의(椅子)
교장(校長)
교장(交通)
교통(交通)
교통(交通)
교정(校庭)

本出版部發賣書籍

周時經先生遺稿 一圓

한글歷代選 (訓民正音부) 一圓

한글鐵筆自習書 翰 五十五錢

松江歌辭 (宣祖朝相臣 松江鄭澈作) 十五錢

朝鮮歌謠集成 古歌篇 八十錢

밤 (李泰俊氏의 短篇小說集) 八十錢

새 글 청구영언 (5)

孟思誠 號東浦, 字誠之, 新昌人, 前朝文壯人, 我朝官至左相, 諡文貞

장호(江湖)에 몸이 드니, 미친 흥이 절로 난다. 탁토(濁醪) (계변(溪邊)의, 금린어(錦鱗魚) 안주 삼고. 이 몸이 한가

하음도, 역군(君恩)이 샅다. 장호의 여름이 드니, 초당(草堂)에 일이 없다. 유신(有信) 한 장파(江波)는, 보내느니 바람이라. 이 몸이 서늘

하음도, 역군은이 샅다. 장호에 가을이 드니, 고기 마다 살지겠다. 소청(小艇)에 그를 싣고, 홀리 띄어 띄켜 두고. 이 몸이 소일하음도, 역군은이 샅다.

장호에 겨울이 드니, 눈코 이 자의 남다. 샷갓 빗기 쓰고 누역으로 옷을 삼아. 이 몸이 칠지 아념도, 역군은이 샅다.

하季良 號春亭, 世宗朝大提學, 諡文肅

치친하 오십년에, 부지외라 친하사들. 역조 창성의, 대가(戴己)를 원하니. 장구(康衢)에 문도(聞童謠)하니, 래평인가 하노라.

내해 좋다 하고, 남 싫은 일 하지 말고. 남이 한다 하

포복 옛이야기

간부 죽이고 돈 버는 재주

정만수 이야기

오라는대는 없어도 갈곳은 많은 정만수(鄭萬壽)는 집에 불어 있는 사이가 도무지 없었다. 한 번 나가면 사흘씩 나흘씩 잊은 듯이 집에 아니 들어오기가 일 수고, 들어온대야 밤이 깊어서 닭이 울 때나 술이 곧드래만드래 취해 가지고 갈광질광 돌아오는 것이 향례였다.

무슨 따음이 내렸는지 하루는 헤어스름에 만수가 제 집에 돌아왔다. 마당에 썩 들어서니, 저녁을 지을 제 안해의 꼴도 볼 수 없고, 원 집에 사람의 기척이 없었다.

가만히 마루에 올라선 만수는 살그머니 방문을 열었다. 이것이 웬일인가? 했구명도 아직 막히지 않았거든 금침-금침이라는 이 보담 누더기라 함이 마방하리라 1을 펼쳐놓고, 제계 집과 그 동네 동장이 나란히 누워서 한잠에 떨어져 있다.

이런 기막힌 일을 목격하였으면 노기충천할것이 인지상정이라면, 세상만사를 말끔 한잔 떠는 코웃음에 부치는 만수는 이 경우에도 띄 웃었다.

「흥, 이 언놈들 봐라. 아주 한 랑충인걸!」 하고, 만수는 가만가만히 걸이 들어가, 동장의 뜰터놓은 허리끈을 떼어서 잔부의 목을 회회 감더니 다짜고짜로 줄르기 시작하였다. 동장은 원 얼굴이 자지밧으로 변하자, 고만 절명하고 말았다.

「앗다 그놈, 침사리도 죽는걸!」 그러고 나서 만수는 목에 잠은 허리끈을 풀어서 한옆에 내어던지고 펠적 집을 뛰어나왔다.

한참 어디 어디로 휘돌아 다니다가, 다시 저녁때가 되어 만수는 천연덕스름게 돌아왔다. 그때야 잠이 깨었는데 안해도 천연덕스름게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었다.

만수는 방에 들어갔다 나오며 「이년아! 동장이 왜 안방에 누웠니? 이게 도무지 웬일이냐?」

「편이 걸렸하면 남을 이년저년고 하겠다. 누가 알아요. 아까 술이 취해 와서 안방에 쓰러져 자는것을 나더러 어쩌란 말이오.」

「요년! 말은 잘도 부친다. 하여튼 깨워나 보내라. 원 빌어먹을 망할놈 다 보겠네. 배포가 유해도 분수가 있지. 남의 집 안방에 한평을 치고 누웠담? 한 시바빠 깨워 보내라!」

위낙 죄말이 되어서 제집은 만수 말대로 동장을 깨우려 들어갔다.

그러나 아무리 혼든들 죽은 사람이 일어날리는 만무하다.

「어서 깨워 일으켜 보내!」 만수는 마루에서 또 한번 재촉하였다.

제집은 하다하다 못하여 두손을 자는 사람의 허리 밑에 고이 어 일으키며 들쳐, 와지끈하고 뼈마디 부러지는 소리가 나며 원 몸이 뺨뺨하였다.

「에그머니! 저도 모를 사이에 제집은 소리를 질렀다.

「너의 어머니는 친정에나 있지, 여기는 없어! 어서 깨워 보내라니까, 에그머니가 또 무어야!」 하고 만수는 그제야 방으로 들어와서 제가 죽인자의 팔을 한번 만져보더니

「빌어먹을놈! 죽었네!」라고 대수롭지 않게 팔을 던진다.

제집은 눈이 혼동그래지며 「에그머니 이 일을 어째, 이 일을 어째! 시방 내 절에 누워 차더니!」 하고 훌쩍훌쩍 울기 시작하였다.

「이년 무엇이 어쩌고 어째!」 「네 절에 누워 차더니」 에게 박살할년! 할말은 많지만, 다 그만 두자. 대관절 사람을 죽여놓았으니 어찌할대야. 나는 지금 법소에 고하겠다!」

「제발더분에 살려 줍시오!」라고 안하는 손발이 당도록 빌었다.

「오나 그랬버려라!」 하고, 만수는 꺾꺾 웃었다. 「밤이 들거든 앞산에 갔다 내버려라, 만일 인

기척이 있거든 단결음에 돌아와야 된다!」

제집은 그 말대로 하였다. 무집기 친근이나 되는 지거운 시체를 질머지고 팔죽 같은 단결음 울리며 앞산에 이르러, 막 시체를 내어버리려 할적이었다. 문득 제 앞에서 누가 큰 기침을 하며,

담배 꼭지를 툭툭 떨어뜨렸다. 제집은 절집을 하고 들쳐서는 수 밖에 없었다. 기침을 한 사람은 만수니, 제집이 나간 뒤에 지름길로 미리 거기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것이다. 그리고 제집이 돌아오기 전에 지름길로 또 먼저 집에 와있었다.

「이년아, 왜 도루 오노?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면 뒷산에서 내버려라!」 무서움과 무거운 짐으로 하여 해몽거리며 돌아온 제집을 보고 만수는 이렇게 고래고래 아단을 쳤다.

제집은 또 시키는대로 하는 수 밖에. 만수는 또 지름길로 앞에 가서, 기침도 하고 담배도 떨어뜨리고 얼른 집에 돌아와 있다가, 들쳐온 제집을 라매(睡罵)하였다. 온튼 원산 원관 산으로 이리기를 여러 차례로 하였다. 이러기에 제집은 죽음보담 더한 고통과 고초를 맛보았다. 다시는 그런 짓을 아니하려고 속으로 여러번 결심하였다.

가라할 산이 끝나자, 만사무석 이오나 살려달라고 비두발판하는 제집의 청을 못이기는체하고 만수는 간부의 시체를 제가 들러

가라할 산이 끝나자, 만사무석 이오나 살려달라고 비두발판하는 제집의 청을 못이기는체하고 만수는 간부의 시체를 제가 들러

고, 의 아녀든 좃지 마라. 우리는 천성을 지키어 생긴 대로 하리라.

金宗瑞 號節齋, 順天人, 官至左相

삼풍(朔風)은 나무 끝에 불고, 명월(明月)은 눈 속에 찬데. 만리 변성(邊城)에, 일장검 쥔고 서서. 긴 바람 큰 한 소리에, 거칠것이 없세라.

장백산에 기를 뜻고, 두만강에 말쑥기니. 석은 커선 비야, 우리 아니 사나이냐. 어땡다. 높은각상(凌雲閣上)의, 귀 일월(日月)에 그르고.

成三問

號梅竹軒, 字謹甫, 昌寧人, 端宗朝叅判 諡文忠, 六臣

수양산(首陽山) 바라보며, 이케(夷齊)를 한하노라. 주려 죽을진정, 채미(採薇)도 하는 것가. 아무리 푸새의것인들, 그 뒤 땅에 낫다니.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고 하니. 봉래산 케일봉에 낙낙승 되었다가. 백설이 만진곤(滿乾坤)할케, 독야(獨也) 청청하리라.

朴彭年

號醉軒堂, 字仁叟, 平陽人, 端宗朝, 官至工叅, 六臣

가마귀 노비 맞아, 허는듯 겸노매라. 야광(夜光) 명월이야, 밤인들 어두우라.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변할줄이 있으라.

메고 나섰다.

그의 발걸음 백만장자에다가 당당한 양반으로 서술이 푸르기가 이 골 월님도 그 앞에서는 허리를 아니 굽실거리고는 하루를 못파기는 대세력자의 집으로 향하였다. 만수는 그 시체를 문에 기대어 세워놓았다. 그리고 그 집 주인의 이름을 몇번이나 고성대성 기린없이 부르고, 그 옆 골목에 몸을 감추었다.

그 집 주인은 사랑에서 호랑이 모양으로 코를 드르렁드르렁 팔고 있다가, 이 부르는 소리에 깜작 놀라 잠을 깨었다. 이 단잠을 깨우는것만으로도 이 소리 언놈의 목을 베어도 시원하지 않았다. 더구나 감사도 감히 못부르는 제 이름을 함부로 부름을 들을제, 그 영감장은 열화와 같이 분노하였다. 눈발울이 부리부리하며 벌떡 일어나자, 일변으로 떨렁방울을 울리고, 일변으로 호령을 쳤다.

「이리 오나라!」

「에이!」 하는 대답 소리가 나자마자, 범강장판이 같은 하인놈들이 대어섯명 제하에 부복하였다.

「어느놈이 문밖에 내 이름을 부르니 사실해 을녀라!」

「에이!」 하자, 하인들이 문간으로 나타났다. 대문을 박차고 나서자, 문에 붙어섰던자가 비실비실 쓰러지는것을 보고, 하인놈들은 「무엄한놈 잘으니!」 하면서, 추

먹으로 휘이지르고 발걸로 밟다 갈기였다. 맞는놈은 아프다 슬프다 소리 없이 뼈를어져 누워졌다. 한참 마더라 보니, 영감마년의 함자를 부르던놈은 벌써 죽었다.

「이르, 큰일 났군!」 하인들은 춤추는 발걸과 손질을 멈추고, 죽인놈들 마주 들고 안으로 팔어들었다. 하인들의 아뢰는 연유를 듣자, 영감장은 파랗게 질렸다. 그래도 하인들에게 호통치기는 잊지 않았다.

「이놈들! 사실해 울리랬지. 누가 마려 죽이라드나!」 하고 입맛을 썩쩍 다시더니, 「어쩔수 있나. 헛간 죄 쌓아놓는데 처넣어라. 어느놈이든지 이 일을 입밖에 내었다 봐라, 목을 벨레니!」 하고 어름장을 놓았다.

하인들이 막 그 시체를 헛간에 숨길려 할적이었다. 골목에서 땅을 보고 있던 만수가 터벅터벅 들어왔다.

「영감마님, 문안을합니다. 동장이 여기 오셨었습니까!」

「동장이 왜 이 밤중에 여기를 온단말인가!」 영감마님은 시침을 떴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저와 가치 오는 길인데요. 왜 문간

이수선수선하였습니까!」 하다가, 헛간을 가리키며, 「시방 하인들이 저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영감장은 고만 외할 말이 없었다.

「그러면 자네가 모두 아는 모양일세 그려!」

「에 암지요!」 「그 동장놈이 무엄하게 내 이들을 부르길래, 하인들에게 사실해 울리라고 했더니, 그애들이 고만 마려 죽였구나!」

「그것 안됐습니까!」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나!」 「살인자는 사(殺人者死)지요. 저가겠읍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내 백냥출테니, 자네가 좀 처치해 주게!」 「백냥 말입니까. 제가 어찌 그것을 처치할수 있습니까!」

「그러면 오백냥을 출테니!」 「저는 몰라잡니다. 그런거야 법이 알지 제가 어찌 압니까. 가 길에 관가에나 들르겠습니다.」 「여보게 천냥 출테니, 내 일을 좀 보아주게 그려!」 하고 영감장은 비두발판을 하였다.

만수는 못 이기는체하고, 천냥 받을 포를 받고는, 또 그 시체를 질러지고 나왔다. 이번에는 동장의 집으로 갔다.

시체를 나리며 문짝에 붙이고는 술이 잔뜩 취한 소리로 「문 열이라, 문 열이라!」 하였다. 그때는 벌써 닭이 두해나 울었을적이었다. 안에서 고단한 잠을 처음 깨서 귀찮아 못 견디는 소리로 「이 원수에것이, 밤새도록 어디로 돌아나니!」 앞만 불터보아, 문을 열어 주나!」

「문안 열어 주면 내 목매어 죽을란다!」 「죽지 죽어. 누가 못 죽게 하나. 이 대천지원수야!」 만수는 동장에 두루막 고름을 두짖을 때에가지고 동장의 목을 움아서 그 대문 옷 문지방에 박힌 고리에다 대롱대롱 매어두고 제 집으로 서 돌아다.

얼마를 지나도 기척이 없으므로, 동장의 안해는 「방난이가 문턱에서 자는가보다!」 하고, 옷가지들을 입은채만채 밖으로 나왔다. 대문을 열어보니, 정말 제 남편은 목을 매고 죽었다. 안해는 그것을 그를 정황도 없이 거기 뒀어저 밤을 치며 통곡하였다.

「내가 어디 정말 목을 매라고 했소. 내가 어디 정말 목을 매라고 했소!」 이런 녀드리를 하면서.....

來月號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 解釋號

로합니다

◎特大號

定價 十錢

注文은

미리

하여두는것이

가상

安全합니다.

한글신명

조선어학회 월례회

구월 달일 하오 四시에 조선어학회 월례회를 본회 회관에 서 열리고, 이극로(李克魯)씨의 「단어 분류의 대하」란 문제로 강화가 있었다. 이어서 사무를 처리하는데, 한글날을 양력으로 환산하여 지켜오던 것에 의의(疑義)가 있다는 건문가의 의견이 있으므로(주로 건문가 건관측소에 재근한 金時中의 의견을 취한 것) 다시 각 건문가 제씨에게 정확한 환산을 부탁할 것과, 한글 문헌 건립회를 개최할 것을 결의하다.

光州基督青年勉勵會

한글 支持의 聲明書 發表

한글 다출범 통일안에 대하여 약간의 불만을 가진 일부 소수인의 소위 반대운동이 나러할 지음에 문예가 제씨의 한글을 지지하는 성명서가 발표됨에 이르렀고, 이제 또 건관측 남도 광주 기독교 청년면련회에 서 아래와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聲明書

우리는 너무나 이것을 等閒히 하고 이것을 모르고 지나왔던 것이 속일수 없는 儼然한事實이다. 그것은 이 至大至貴한寶物인 「한글」을 所有하면서 도 현신적자를 내버려두지 않았던가. 그리하여 뜻이 있는 이

「한글언론」의 대강면

방청인(우친)의 명

건조선 예수교 면련청년회 면담대화가 구월 일일부터 동유일까지 평양 숭실전문학교 대강당에 열렸는데, 제우일에는 이은재(李允宰)씨를 강사로 청요하여 「한글 운동」이란 주제로, 오늘날 한글 운동에 대한 현상을 열렬히 말하며 만창청중에게 크게 흥분을 일으키었다. 당일 방청인은 실로 오천여명으로, 조선 역사상 처음 있는 큰 모임이었다.

「조선어학회」 재판

면회전문학교(延禧專門學校) 교수 최현배(崔鉉培)씨의 지은

중등조선말본은 출판되지 이 개월이 못되어 벌써 절판이 되었고, 각처에서 주문이 담지하므로 서점에서 크게 곤란하게 된 현상이더니, 밤을 새어가며 끝내 재판을 하여 얼마전부터 발매하는 중이다.

심훈씨의 작

「永遠의 微笑」 출판

소설가 심훈(沈薰)씨의 장편소설 「永遠의 微笑」를 일주 조선중앙일보에 연재하여, 만천하 독자에게 열광적 환영을 받던 것으로, 지금 한성도서주식회사에서 출판하는 중인데, 철자는 순전히 한글 통일안에 의지한 것이라 한다.

그러나 우리들은 일부 人士나 文藝家에게만 放任해버릴 問題가 아니라, 實로 民族 全體의 關心을 要할 重大한 問題이다.

學理에 對한 批判과 討議는 自由라고 하지만, 이미 統一案이 發表된 以上, 若干의 不滿이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서 면서 次次 改善하도록 努力하는 것이 누구나 다가치 取할 態度이어늘, 統一案을 反對함은 우리 民族 福利를 阻得하는 것 밖에 되지 못함을 看破하는 바라, 그러므로 우리는 朝鮮語學會의 「한글 統一案」을 支持하는 同時에 더욱 完璧에 이르기까지 健闘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에 덧붙여, 본회에서 는 지난 九月 九日 臨時總會를 開하고, 左記와 如한 決議를

支社에 對하여

「한글」은 오로지 우리들 統一 및 普及을 天職으로 삼는다. 그런 同時에 天下에 同志를 求한다. 우리들 統一 및 普及을 爲하여 誠이 있고 熱이 있는 이면 누구든지 다 우리의 同志가 될 수 있다. 主要地마다 支社를 두어 同志와 서로 協力하고저 한다. 支社 經營에는 別般 形式的 手續이 없고, 다만 事業에 協力할 決心만 있으면 그만이다. 이에 뜻이 있는 이는 한번 書面으로 문기를 바란다. 보게 되었다.

決議案

- 一、우리는 朝鮮語學會의 「한글 統一案」을 支持 準用하기로 한다.
- 一、基督敎人の 日常 使用하는 聖書及 讚頌歌를 한글 統一案대로 改定하되, 이를 大英 聖書公會에 促進하기로 함.
- (여기에는 主日工課와 宗教 利行物 一切를 包含함)
- 一、本會의 聲明書와 決議文을 勉靑 全南聯合會 朝鮮聯合會에 提議 促進하기로 함.
- 一、各言論機關에 本會의 決議文及 聲明書를 發送하기로 함.

一九三四年 九月 日
光州錦町基督青年勉勵會

社告

이번에 新設한 支社는 다 음과 같습니다. 地方에 계시는 讀者 諸氏는 많이 사랑하여 주소서.

鐵山支社

- 一、區域 鐵山郡 一圓
- 一、位置 鐵山邑東平洞
- 一、任員 支社長 李明克 總務 劉天德 記者 李枝運

靈光支社

- 一、區域 靈光邑道東里
- 一、任員 支社長 曹喜滯 書記 曹秋園

價定

一部	五錢	代金은
六個月	三十錢	반듯이
一箇年	五十五錢	先金을
		要함.

昭和九年九月三十日 印刷
昭和九年十月一日 發行

編輯兼 李允宰
發行人 李允宰

京城府堅志洞三二番地 印刷人 金鎮浩

京城府堅志洞三二番地 印刷所 漢城圖書株式會社

京城府花洞一八九番地 發行所 朝鮮語學會出版部

振替京城一〇三六番 總販賣所 漢城圖書株式會社

電話(光)一四七九番 振替京城七六六〇番

代金을 보내실 때는

京城府花洞 一八九番地

朝鮮語學會出版部

振替

京城壹〇參六番으로 하시오